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7. 12. 19.(화) 16:00~17:2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검토사항】

- | | | |
|---|---------------------------------------|--|
| 1 | 「고양 능곡교회 종」 문화재 등록 검토 | |
| 2 |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문화재 등록 검토 | |

【보고사항】

- | | | |
|---|---|--|
| 3 | 등록문화재(건축·시설물) 재평가 결과 보고 | |
| 4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경과사항 보고
(경의선 출입구 이전) | |

검 토 사 항

1. 「고양 능곡교회 종」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고양 능곡교회 종」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 기독교 장로회 능곡교회’가 등록 신청한 유물인 「고양 능곡교회 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 기독교 장로회 능곡교회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대	제작자	소유자	소재지	비고
고양 능곡교회 종	1점	높이 75cm, 지름 : 67.5cm	철	1947년 추정	(미상)	한국 기독교 장로회 능곡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33-12	

- (3)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6. 4. 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10. 27.)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7.10.27.)>

○ ○ ○ ○

- 본 유물은 능곡교회사에서 볼 때에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독교 전래 이후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지며 유물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 않음.

○ ○ ○ ○

- 현존하는 교회 종으로서는 약현성당의 종(1893년, 프랑스), 전동성당 종(1909년, 프랑스), 상흥리성당 종(1921년, 프랑스), 가실성당의 종(1924년, 프랑스), 매곡성당 종(3개, 1936, 프랑스) 등 제작처가 뚜렷이 기록된 미등록된 종이 있으며, 능곡교회 종은 관련 기록이 부족하므로 교회사의 사료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문화재로 등록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 ○ ○

-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조한 것에 비해, 능곡교회 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를 보이나, 제작에 관한 기초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 앞으로 이에 관한 자료가 보충되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종 전수조사 후 재검토

○ 출석 9명/ 보류 9명

<붙임>

「고양 능곡교회 종」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양 능곡교회 종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04번길 33-12
3. 소유자 : 한국 기독교 장로회 능곡교회
4. 조사자 의견

<○○○○>

1) 현황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능곡교회 앞마당에 철제 종탑(약 7-8미터)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철로 구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종이 걸려 있음. 종의 형식은 내부에 추가 달려 있는 서양식임.

2) 현상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능곡교회 경내에 철제 종탑이 있으며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에 사각뿔 형태의 철제 갓이 있고 갓 아래에 종이 걸려 있음. 종의 모양은 둥근 전등갓과 같은 형태로, 한국의 전통 종의 모양과는 확연히 구분됨. 종의 재료는 철이며, 종의 표면에 글자가 있으나 부식이 심해 육안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3) 내용 및 특징

- 종은 타종 방법에 따라 동양종과 서양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양종은 종신 표면을 외부에서 당목(撞木)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방식이고 서양종은 종의 내부에 방울이나 추를 매달아 내부에서 치는 방식임. 본 유물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전래와 더불어 국내로 유입된 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음. 능곡교회에서는 1947년경에 종탑과 종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 다만, 철제 종탑에 총탄의 흔적이 있어 한국전쟁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능곡교회는 1893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사산교회」라는 교회명으로 시작되었고 1937년에 「능곡교회」로 개명되었음.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본 유물은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음. 이 종탑은 원래 교회 건물과 가까이 있었으나, 1992년에 교회 건물을 완전히 새로 건축하면서 종탑을 교회 마당(주차장)의 한편으로 이 건하였고, 현재는 이 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 능곡교회에서 추정한다면 이 종이 1947년경부터 사용되었다면 70년여 교회를 지켜온 것으로, 능곡교회 자체로서는 역사성이 있음. 그러나 철로 구조된 종을 특별한 조치 없이 비바람에 노출시켜 놓았기 때문에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종의 디자인에서 특이성을 찾기는 어려움.

4) 기타

- 기독교 전래 이후에 제작된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하던 종은 태평양전쟁 당시에 공출되어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전국의 성당이나 교회에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담긴 종들이 현존하고 있음. 참고로, 개신교의

현존하는 종으로는 인천 내리교회 종(1901년 추정), 대한성공회주교좌성당 종(1926), 화성 샘골교회 종(1930년대), 대한성공회 강화교회 종(연도미상), 진도소포교회 종(연도미상), 서울 상동교회 종(연도미상) 등이 있음. 능곡교회 종은 이들 사례에 비해 제작연도가 내려오며, 제작지나 제작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됨.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한국전쟁 당시에 교회 건물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능곡교회의 역사에서 귀중한 유물로 판단됨. 그러나 제작연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종의 표면에 글자가 있으나 부식이 심하고 종탑 꼭대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제작자나 제작지를 알 수 없음. 비바람에 노출되어 부식 상태가 심한 상태이며, 종의 조형적 특징에서 특이성을 찾기 어려움.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으나 능곡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존 처리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7) 종합의견

- 본 유물은 능곡교회사에서 볼 때에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독교 전래 이후 천주교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지며 유물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지 않음.

<○○○>

1) 현황

- 한국기독교장로회 능곡교회 마당의 종각에 위치함

2) 현상

- 능곡교회 종은 교회 마당의 종각에 설치되어 있다. 높이 75cm, 지름 67.5cm의 철제 스윙벨이다. 휠이 있으나 종각틀과 인접해 있어 (사용 시에는 종각과 충돌할 수 있음, 현재는 치지 않음) 종각이 원래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임.
- 보통 종의 표면에는 제작사, 제작년도, 봉헌자 등의 기록이 있으나 현재 판독이 어려운 몇몇 글자의 흔적이 있을 뿐임.
- 불교 범종을 제외한 1960년대 이전의 종은 대부분 외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제작사, 년도, 봉헌자가 종의 표면에 부조로 기록되어 있음.

3) 내용 및 특징

- 스윙벨 형식의 교회 종으로서 특징적인 것을 찾기 힘들. 관련 기록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국내에서 제작된 종으로 추정됨. 한국 전쟁시의 탄흔 흔적이 있다고 하나 접근이 불가능하여 확인이 어려움.

4) 기타

- 현존하는 교회 종으로서는 약현성당의 종(1893년, 프랑스), 전동성당 종(1909년, 프랑스), 상홍리성당 종(1921년, 프랑스), 가실성당의 종(1924년, 프랑스), 매곡성당 종(3개, 1936, 프랑스) 등 제작처가 뚜렷이 기록된 종이 있음.(미등록) 따라서 능곡교회 종은 교회사의 사료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문화재로 등록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건보다 50년 이상 앞설 뿐만 아니라 연혁이 확실한 사례(미등록)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이 부족함으로 등록가치 미흡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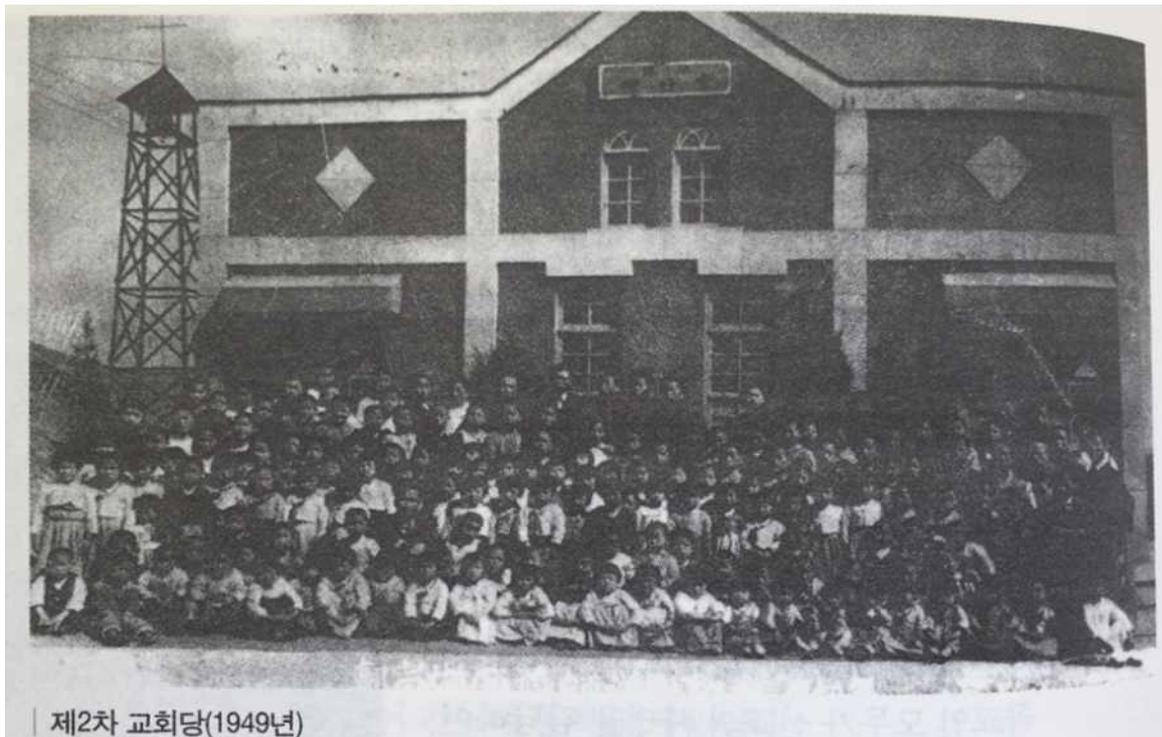
1) 현상

- 능곡교회 종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능곡교회 마당 한쪽에 있는 철제 종탑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의 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종탑의 위치는 옮겨져 있으나 6.25 동란 당시의 총탄 자국이 있는 철골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1950년 이전의 재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이 7-8m 높이의 철골 위에 있는 관계로 유관으로 살펴기 어려우나 능곡교회가 제출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종의 사진을 살펴보면 종 허리에 제작사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부식으로 인해 정확히 읽을 수는 없는 상태임.

2) 내용 및 특징

- 한국 사찰의 범종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종도 중세 때부터 교회자체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그 지역 공동체에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 했음. 특히 한국 교회의 종은 수난의 역사와 함께 하는데, 일제하의 전쟁 수행을 위한 공출로, 1942년 10월 15일 까지 장로교회분만 1,540개(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1회회록 50면) 나 강제 징발한 것으로 기록됨. 따라서 선교 초창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조해온 오래된 종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음. 능곡 교회의 종은 해방 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임.
-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교회가 제출한 문서에는 '1947년 추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경기도지사의 '의견서'에는 1955년 5월에 교회 신축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능곡교회의 120년사>의 27쪽 및 156쪽에 연제된 '1949년 신축교회' 앞 전교인 기념촬영(침부사진하단) 광경을 보면 건물 좌측에 기존 종탑이 따로 서 있는 것이 확인됨. 따라서 이 종의 제작년도는 1949년도 이전으로, 능곡교회가 추정하는 1947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 가장 오래된 종은 프랑스에서 1893년에 제작된 약현성당(서울소재)의 종이고, 개신교회는 1915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동대문교회(서울소재)의 종으로 추정되는 바 그 형태는 모두 전통적인 서양교회의 벨임. 이에 반해 능곡교회 종은 역사는 앞의 종들에 비해 짧으나 그 형태가 상하 비율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각에 메달아 밑에서 칠 수 있도록 서양벨과 같은 긴 추와 부대설비가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음. (외형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서양벨을 원통 비유하면 능곡교회의 종은 원추 같다 하겠음)
- 이 종에는 서양 벨과 같이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으나 주조 당시 새겨진 한글 문자가 확인됨. 그러나 조사 당 일에 높이 있는 종탑에 올라가 확인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교회가 준비한 자료사진은 종 주변 부식이 심해 글자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주거지역 소음관리를 위해 교회의 종을 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교회가 건물을 이미 두세 차례 신축한 상태여서 한국교회의 옛 종은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 반해 능곡교회의 종은 교회의 역사적 상징으로 종탑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종의 형태, 부속 장치, 시문 흔적, 그리고 종탑 설치시기 관련 사진>



3) 문헌자료

- 현재 능곡교회에 종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종의 역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이 실려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음.
<능곡교회 120년사> 도서출판 갯골, 2014

4) 기타

- 능곡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1938년 4월 예배를 시작한바, 이 교회는 1945년에 청동으로 제작한 종을 사용하였으나, 이 종을 도난당한 후, 1947년에 종탑과 함과 주철로 이 종을 제작하였다고 함.
-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한국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초창기 종은 모두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작하여 들여온 것인데 반해, 능곡교회의 종은 역사적으로 사찰의 종들을 만들어 오던 우리 기술로, 서양의 벨도, 불교의 범종도 아닌 독특한 형태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현재는 이 종의 제작 등 좀 더 확인 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이 종이 어떠한 형태와 양식으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능곡교회는 이 종이 한국 교회사 및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에 현재 부식된 부분에 대하여 보존 처리를 등을 진행한 후 안내판을 세워 고양시의 지역 및 선교 역사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고, 관할 관청인 경기도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경기도 근대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입장임. 개신교의 다른 등록 문화재들이 대부분 19세기의 유품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이 종은 해방 이후 제작된 것으로 연한이 짧은 상태임. 따라서 앞으로도 교회가 이 종을 잘 보관하여 언젠가는 등록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조한 것에 비해, 능곡교회 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를 보이니, 제작에 관한 기초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 앞으로 이에 관한 자료가 보충되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개인 소장자가 등록 신청한 유물인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문자보급교재	1종 1책	19.0×12.8cm	양지	1935년	○○○	○○○	
문자보급반 한글원본	1종 3책	19.0×13.0cm	양지	1930년 이후추정	○○○	"	

- (3)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신청('16. 4. 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7. 11. 7.)
- (4)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7.11.7.)>

○ ○ ○ ○

- 이번에 신청된 『문자보급교재』는 기 등록된 동아일보 소장본보다 1년 뒤에 발행된 것이고, 『한글원본』은 조선일보 소장본과 같은 해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됨. 더욱이 동아일보 소장의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등록문화재 제484-1호)는 4종, 조선일보 소장의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등록문화재 제484-2호)는 3종의 문자보급교재가 함께 등록된 것임. 그렇다면 이번 신청 본은 자료적인 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 ○ ○ ○

- 문자보급교재는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1년 앞서 나온 동일한 내용의 책자가 이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책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동일한 책이 당시 신문사 소장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 ○

-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자보급책’과 ‘한글원본’(3책) 그리고 ‘문자보급반원증’을 한 조(組)로 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였다면 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문자보급교재는 등록문화재 484-1호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등록문화재 484-1호보다는 후대본이기 때문임.
- 한글원본은 소장자의 부친이 ‘문자보급반원증’을 소지하고 있고 『문자보급책』과 함께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짐작할 수 있으나 발행시기가 불명확하고, 초간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등록가치 미흡

○ 출석 9명/ 부결 9명

<붙임>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길 23 호계1차 현대홈타운 102-1602
3. 소유자 : 정만운
4. 조사자 의견

<○○○>

- 1) 현상
 - 온전함
- 2) 내용 및 특징

문자보급교재 / [편저자 미상]. - 연활자본
경성: 조선일보사, 1935
32면; 19.0×1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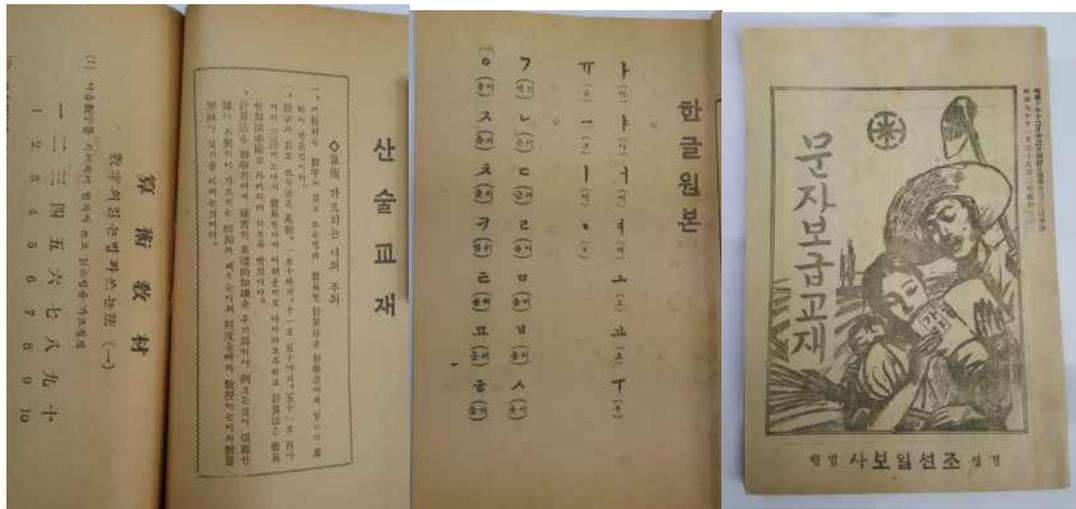
한글원본: 문자보급반 / [장지영] 편저. - 연활자본
경성: [조선일보사], [1930]
14면; 19.0×13.0cm

- 『문자보급교재』와 『한글원본』이 발간된 배경은 문자보급운동에서 비롯됨.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사가 1929년 7월 14일에 귀향하는 학생들을 국민들의 문자보급 운동에 참가시킨 한글보급 운동임. 곧 방학으로 고향에 간 학생들이 농민과 부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운동이었음. 비록 한글 문맹자를 없애고자 한 것이었지만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계몽운동이자 항일운동의 일환이 되었음. 그래서 이 운동은 민족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935년에 총독부 압력으로 중단될 때까지 계속되었음.
- 처음 신간회 주역인 안재홍 조선일보 주필이 1929년 1월에 부사장이 된 후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키자 신간회 조직들은 자원하여 참가하였음. 또 학생들도 이 운동에 매년 수 천 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때 주최 측인 조선일보사에서는 문자보급운동 교재를 만들어 전국에 무료로 배포하였음. 이때 교재로 사용된 자료가 바로 『문자보급교재』와 『한글원본』임. 특히 1934년에는 92개 중학교와 33개 전문학교, 일본 유학생 등 5078명이나 이 운동에 참가하였고, 『한글원본』은 100만부 이상 발간되어 무료로 배포되었다고 함.

(문자보급교재)

- 『문자보급교재』는 1934년 6월에 처음으로 조선일보사에서 발행된 한글과 산수를 포함한 교재임. 곧 <사진1>에서 보듯이 「한글원본」, 「산술교재」를 합한 교재임. 「한글원본」에는 자음·모음·발음 등에 대해, 「산술교재」에는 숫자 읽고 쓰는 법, 가감승제법 등이 수록되어 있음. 이렇게 『문자보급교재』는 조선일보사가 한글과 산수를 동시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자료임.

<사진1> 『문자보급교재』 표지(우)와 내용(중좌)



- 이번에 신청된 『문자보급교재』는 “1935년 12월 23일의 조선일보 제5239호 부록”으로 발행된 것임. 앞표지에는 『문자보급교재』라는 서명과 경성 조선일보사 발행이라고 되어 있음. 앞표지 내면에는 “한글 가르치는 이의 주의”가 있고 「한글원본」이 시작됨. 1-17면까지는 「한글원본」이고, 18-32면까지는 「산술교재」임. 「산술교재」에는 한자가 혼용되어 있음. 뒤표지에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글과 함께 역시 “1935년 12월 23일의 조선일보 제5239호 부록(비매품)”이라는 글이 있음. 그러므로 신청본은 『문자보급교재』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1년이 지난 시기에 발행된 교재임. 전체의 면수가 1934년 발행본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내용도 거의 1934년 발행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1936년에는 한글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면수는 4면이 증가되어 36면이 되었음. 현재 동아일보사 소장의 1934년 6월 발행본은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라는 명칭으로 2011년 12월 15일에 이미 등록 문화재 제484-1호가 되었음.

(한글원본 : 문자보급반)

- 『한글원본』은 『문자보급교재』에 수록된 「한글원본」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 모두 14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 <사진2>와 같이 앞표지에는 “文字普及班 한글원본” 주최 조선일보사가 표시되어 있고, 본문은 『한글원본』이라는 제명에 이어 모음 자음에 대해 소개해 놓았음. 그 뒤에는 “一”에서 “二十”(흥부 2)까지 나누어 점차적으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음. 뒤표지에는 『노동독본』 등 10종의 교과서가 소개된 노동야학교과서목록이 광고로 게재되어 있음.

- 신청본은 발행연대가 없으나 1930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판인 3부임. 현재 조선일보사 소장의 1930년 11월(초판 2쇄) 발행본은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라는 명칭으로 이미 제484-2호로 되었음.

〈사진2〉 『한글원본』 (우)와 내용(좌)



- 한글교재로서의 이 책들은 조선어학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참고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어학사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던 자료들로 국어교육사 측면에서도 중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현재 『문자보급교재』와 『한글원본』은 다른 교재들과 함께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라는 명칭으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 곧 등록문화재 제484-1호(동아일보사), 제484-2호(조선일보사)에는 이들 교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이 중에서 『문자보급교재』는 1936년 12월 발행본(조선일보사 소장)과 1934년 6월 발행본(동아일보사 소장) 등 2책이 있고, 한글원본은 1책임. 기 등록된 책과 이번에 신청된 책을 대비하면 <표1> 과 같음.

〈표1〉 등록문화재에 포함된 『문자보급교재』· 『한글원본』 과 신청본 대비

구분	동아일보사 소장 (제484-1호)	조선일보사 소장 (제484-2호)	신청본	비고
문자보급교재	1934년 6월	1936년 12월	1935년 12월	기 등록본(동아일보사)보다 후년판
한글원본	×	1930년 11월 (초판 2쇄)	[1930]년	기 등록본과 동일판 추정

3) 문헌자료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사:2,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등록문화재 제484호 심의 검토자료, 2011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번에 신청된 『문자보급교재』는 기 등록된 동아일보 소장본보다 1년 뒤에 발행된 것이고, 『한글원본』은 조선일보 소장본과 같은 해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됨. 더욱이 동아일보 소장의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등록문화재 제484-1

호)는 4종, 조선일보 소장의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등록문화재 제484-2호)는 3종의 문자보급교재가 함께 등록된 것임. 그렇다면 이번 신청 본은 자료적인 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5) 종합의견

- 등록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

가. 문자보급교재

1) 현상

○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이 책자는 일제강점기에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려는 교재로 제작된 것임.

○ 이 책자는 <한글원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사에서 문맹 퇴치운동을 벌이기 위한 교재로 사용된 것임. 이 책은 그 운동에 참여하였던 문자보급반원이 사용되었던 것인데, 그 후손에 의해서 소장되고 있는 것임.

○ 내용은 1934년판 <문자보급교재>와 차이가 없음.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책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동일한 책이 이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임. 수년 전 문화재 등록으로 결정할 때 복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신문사 발행 책자로 제한한 바 있음. 따라서 이 책은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책자는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1년 앞서 나온 동일한 내용의 책자가 이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한글원본 : 문자보급반

1) 현상

○ 과본이나 낙장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

○ 발행연도는 나와 있지 않음. 1930년으로 추정함.

2) 내용 및 특징

○ 발행 당시는 일제강점기로서 한국어 말살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임.

○ 조선일보사에서는 국민 계몽과 민족정신 고취의 일환으로 한글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음.

○ 이 책자는 이러한 문맹 퇴치운동을 위한 교재로 사용됨. 따라서 이 책자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책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책이 이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임. 수년 전 문화재 등록으로 결정할 때 복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신문사 발행 책자로 제한한 바 있음. 따라서 이 책은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책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동일한 책이 당시 신문사 소장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재 등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가. 문자보급교재

1) 현상

- 표지서명: 문자보급교재
- 내지서명 : 한글원본
- 편저자 : 미상
- 발행자 : 방응모
- 발행소 : 조선일보사
- 발행 연도 : 1935년 12월 23일
- 판종 : 연활자본
- 책광 : 12.8 X 19.0 cm
- 장수 : 32면
- 지질 : 양지
- 특기사항 : 조선일보 제5239호 부록
- 소장자 : 정만운
- 보존상태 : 매우 양호한 편

2) 내용 및 특징

<표지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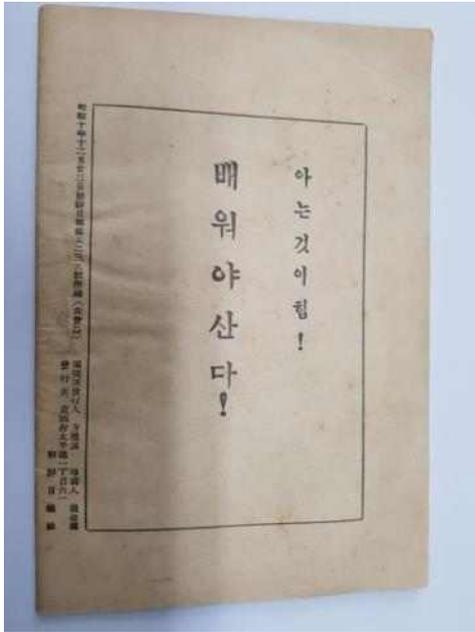
<정만운씨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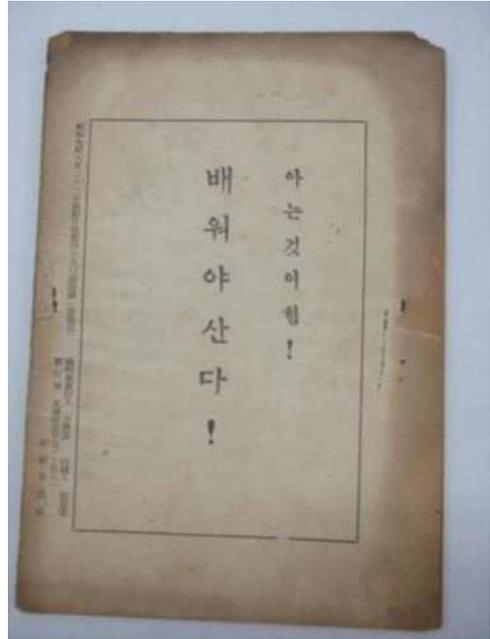
<등록문화재 484-1호>

- 이 앞면을 통하여 이 책의 제목이 ‘문자보급교재’이고 조선일보사에서 소화 10년 (1935년) 12월 23일에 조선일보 제5239호 부록으로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 표지의 그림이나 제목 등은 모두 등록문화재 484-1호로 지정된 책과 동일함. 그러나 등록문화재 484-1호는 소화 9년(1934년) 6월 22일 조선일보 제 4690호 부록으로 간행된 것이어서 등록문화재 484-1호에 비해 약 6개월 뒤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음.

<표지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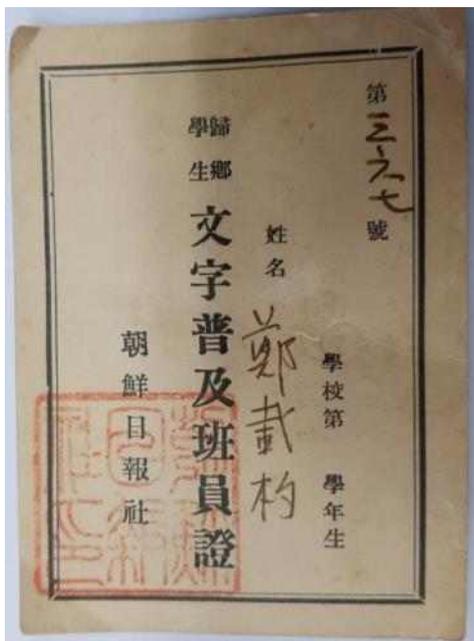


<정만운씨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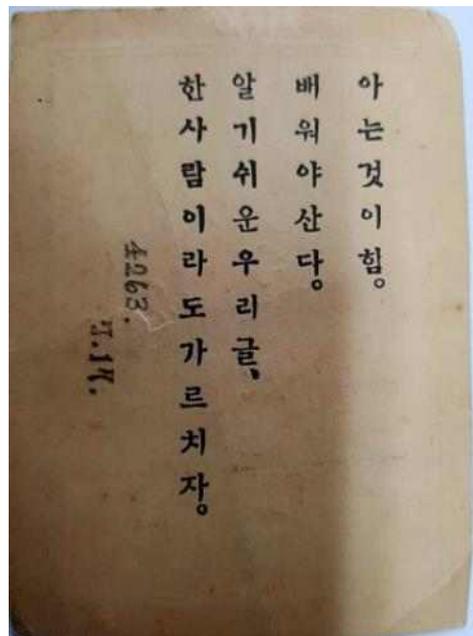


<등록문화재 484-1호>

- 뒷면의 내용도 동일하나 역시 간행연도에서 차이가 있음. 그 내용은 앞 표지와 동일함. 나머지 부분은 등록문화재 484-1호와 동일함.
- 3) 평가
 - 표지에 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다른 ‘문자보급책’의 표지에 보이는 그림과 차이가 있어서 여러 종류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언문 반절표식으로 한글 자모를 소개한 사실은 의외라고 할 수 있음. 예컨대 ‘.’가 그대로 예시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의 예문에서는 ‘.’의 쓰임이 전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치밀하게 검토하여 편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이 자료는 그 소장자가 함께 소장하고 있는 ‘문자보급반원증’과 함께 한 쌍을 이루는 자료라고 생각함.



<문자보급반원증(정재표)> 앞면



<문자보급반원증(정재표)> 뒷면

- 이 자료는 조선일보사에서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지역별로 반원을 정하여 조직적으로 문자보급에 나섰음을 증명하는 것임. 1930년 7월 17일에 발행된 것이니, 아마도 문자보급책도 1930년에 먼저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소장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자보급책’과 ‘한글원본’(3책) 그리고 ‘문자보급 반원증’을 한 조(組)로 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였다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신청하지 않은 것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함.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언론사의 문자보급운동은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 다른 무장투쟁 등의 독립운동은 대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자보급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은 일종의 문화독립운동이어서 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게 됨. 그러나 그 효과는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화 독립운동을 전개한 언론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운동을 발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편찬된 각종 문자보급교재들은 그 운동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의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들은 국어학사 기술에서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던 자료들이어서, 국어학사 기술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역시 국어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문자보급교재는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보존, 관리하여 후대에 전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신청된 이 문헌은 등록문화재 484-1호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등록문화재 484-1호보다는 후대본이기 때문임.

5) 종합의견

-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없음

나. 한글원본 : 문자보급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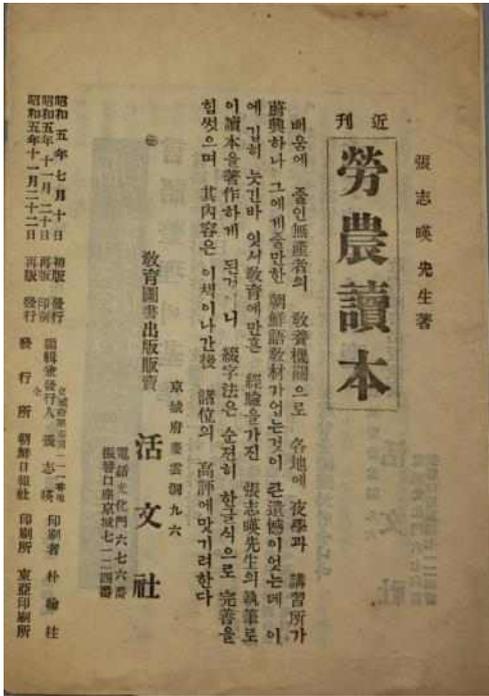
1) 현상

- 책명: 한글원본
- 저자 : 장지영으로 추정됨
- 발행소 : 조선일보사
- 발행연도 : 미상
- 판종 : 연활자본
- 지질 : 양지
- 소장자 : 정만운
- 책광 : 13 X 19 cm
- 장수 : 16쪽(앞표지와 뒷표지 포함)
- 보존상태 : 양호한 편

2) 내용 및 특징

- 표지 제목은 ‘한글원본’이고 왼쪽에 ‘문자보급반’이라는 것이 있고 왼쪽 아래에 ‘주최 : 조선일보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이 조선일보사에서 행한 한글 문자보급을 위한 교재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내지 제목 : 내지의 책 제목은 ‘한글 원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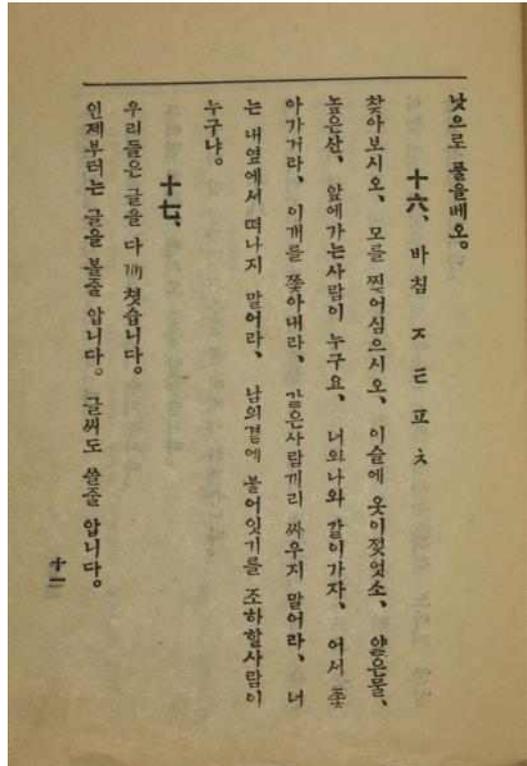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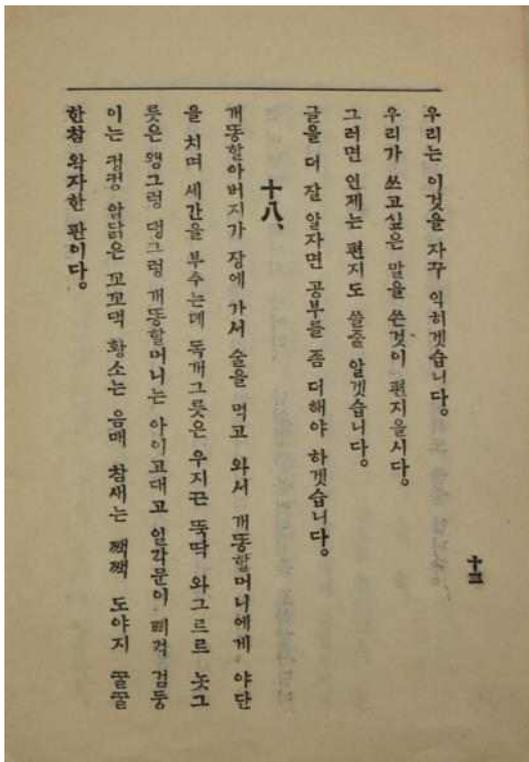
- 母音 : 자모와 그 자모의 아래 괄호 안에 자모의 명칭이 있음(이 명칭은 ‘·’자를 제외하고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의 내용과 일치함).
- 子音 : 자모와 그 자모의 아래 괄호 안에 자모의 명칭이 있음(이 명칭은 ‘ㄱ(기음)’을 제외하고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통일안’의 내용과 일치함)
- 내용을 1부터 시작하여 20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一 : ㄱ 과 ㄴ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二 : ㄷ 과 ㄹ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三 : ㅁ 과 ㅂ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四 : ㅅ 과 ㅇ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五 : ㅈ 과 ㅊ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六 : ㅋ 과 ㆁ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七 : ㅍ 과 ㅎ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八 : ㄱ 과 ㄷ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九 : ㅁ 과 ㅂ 과 ㅅ 의 반절표와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 : ㄱ, ㄴ, ㄷ, ㄹ 과 이중모음 ㅈ ㅊ ㅋ ㄱ ㄴ에 결합된 음절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一: ㅁ, ㅂ, ㅅ, ㅇ 과 이중모음 ㅈ ㅊ ㅋ ㄱ ㄴ에 결합된 음절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二: ㅈ, ㅊ, ㅋ, ㆁ, ㅍ, ㅎ 과 이중모음 ㅈ ㅊ ㅋ ㄱ ㄴ에 결합된 음절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과 이중모음 ㅈ, ㅊ에 결합된 음절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四: 받침 ㄱ ㄴ ㄷ ㄹ 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五: 받침 ㅁ ㅂ ㅅ ㅇ 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六: 받침 ㅈ ㅊ ㅋ ㆁ 과 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시
 - 十七 - 十八 : 문장의 예시
 - 十九 : 흥부 1
 - 二十 : 흥부 2
- 뒷표지의 앞쪽에 ‘노동야학교과서의 완성’이란 책의 광고가 있고 뒷표지에는 노동야학교과서 목록이 실려 있음. 그리고 뒷표지 하단에 ‘中央印書館’이란 총발매소가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이 ‘中央印書館’은 ‘한글원본’을 간행한 곳이 아니고 노동야학교과서를 간행한 출판사의 이름임.
- 따라서 이 책은 간행기록이 전혀 없는 책임.
- 이를 통해 볼 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등록문화재 제484-2와는 다른 책임을 알 수 있음.
- 등록문화재 제484-2호는 간행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음.
 昭和 五年(1930년) 十一月 二十二日 再版 發行
 編輯兼發行人 : 張志暎
 發行所 :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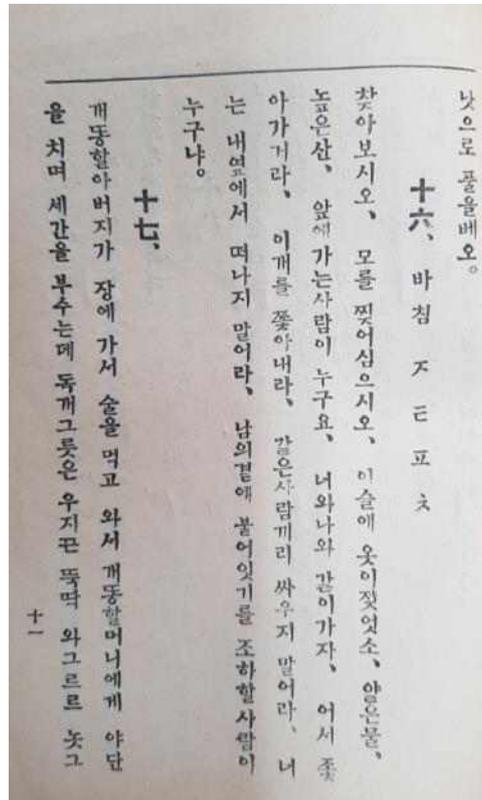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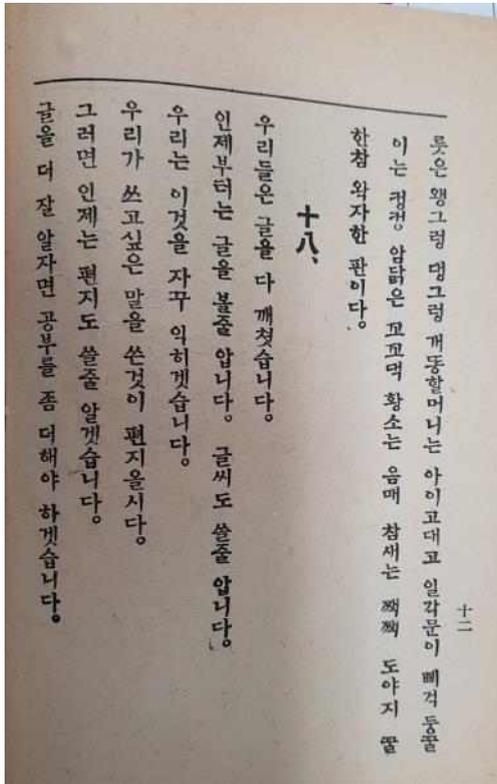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484-2의 뒷표지>

<정만조 씨 소장본의 뒷표지>

- 즉 등록문화재 제484-2는 1930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정만조 씨 소장본은 아마도 그 후에 간행된 책으로 추정됨.
- 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 제484-2의 내용과 이 책의 순서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제시한 一에서 二十까지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등록문화재 제 484-2호의 17은 18로 18은 17로 바꾸어서 순서를 바꾸어 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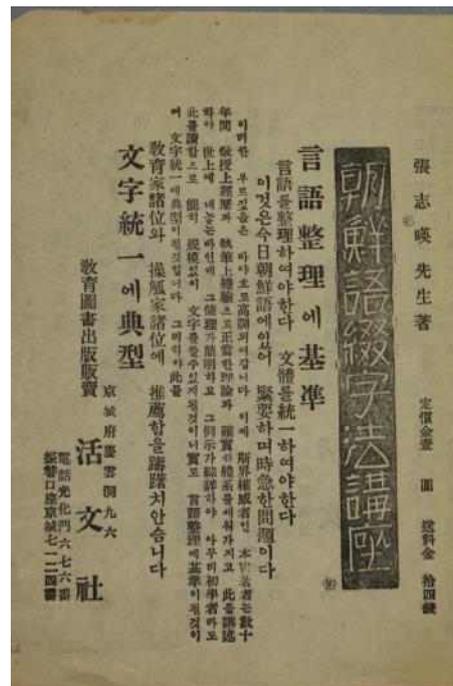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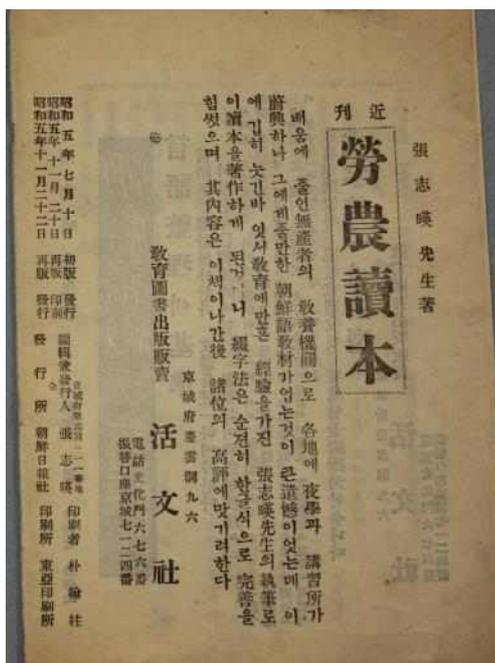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484-2의 十七, 十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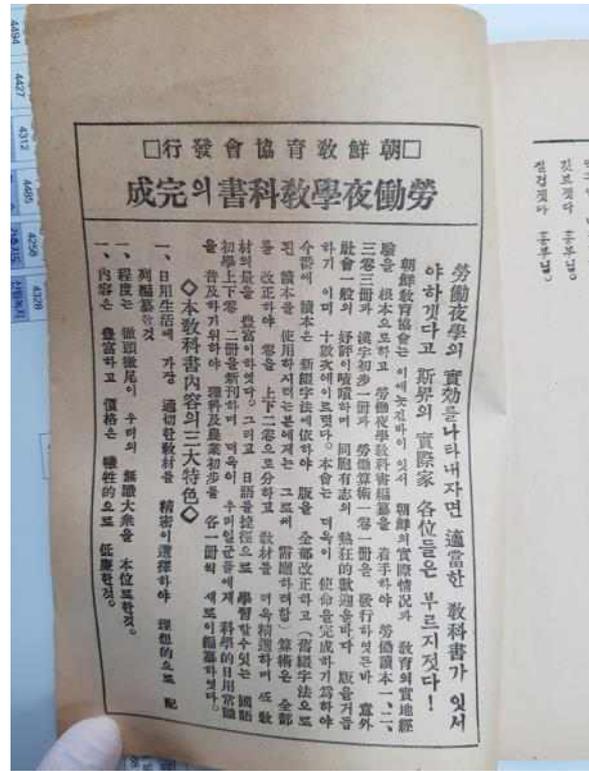


<정만조 씨 소장본의 十七, 十八>

○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광고지도 다름. 즉 등록문화재 제 484-2호는 『朝鮮語綴字法講座』와 『勞農讀本』인데 비해서 정만조 씨 소장본은 『勞働夜學教科書의 完成』과 『勞働夜學教科書目錄』임.



<등록문화재 제484-2의 十七, 十八>



<정만조 씨 소장본의 十七, 十八>

- 물론 이 두 책의 광고지에 보이는 책은 모두 그 당시 조선일보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장지영의 저서들로 추정됨.
- 3) 평가
 - 이 ‘한글원본’은 등록문화재 제484-2로 보아 1930년 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됨.
 - 이 한글 원본은 ‘장지영’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장지영은 1926년 10월부터 1931년 7월 사이에 조선일보 기자 겸 지방부장, 문화부장,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문맹퇴치와 한글 보급운동을 펴온 사람임.
 - 조선일보사에서 장지영에게 이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장지영이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한글원본에 있는 내용은 장지영이 편찬한 문법책인 油印本 ‘朝鮮語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함.
 - 조선일보사에서 간행한 문자보급교재인 ‘한글원본’의 저자가 장지영임.
 - 조선일보사에서 간행된 문자보급교재인 ‘한글원본’의 뒤에 붙은 책의 광고는 모두 장지영의 책 『朝鮮語綴字法講座』와 『勞農讀本』의 저자도 모두 장지영임.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한글원본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벌인 문화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글 보급을 위한 자료임이 틀림이 없음. 즉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편찬된 각종 문자보급교재들 중의 하나임.
 - 따라서 이 책은 등록문화재 제484-2와 마찬가지로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보존, 관리하여 후대에 전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점에서 결격사유를 지님.
 - 첫째, 발행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임. 문화재는 그것의 사용 및 간행연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임. 간행연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가 없는 유일본이라면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간행연대가 불분명

한데 간행연대가 분명한 동일 성격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수 있음.

- 둘째, 이 책이 초간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임.
- 단지 이 책이 소장자의 부친이 ‘문자보급반원증’을 소지하고 있고 『문자보급책』과 함께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짐작할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5) 참고문헌

-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一潮閣.
- 盧榮澤(1977), 日帝下 農民啓蒙運動의 연구 - 동아일보사의 브·나르드 운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26집
- 愼鏞廈(2005),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르드 운동, 한국학보 120.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사 II,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현희(1991), 어문연구와 문자보급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 전진석 편(1999), 『해설, 문자보급운동을 통한 농촌계몽운동과 민족운동, LG상남언론재단.
- 정진석(1997), 언론을 통한 장지영의 국어운동, 어문연구 제25권 제4호.

6) 종합의견

- 국가문화재로 등록하여 연구, 관리, 보존할 가치가 없음

보고 사항

3. 등록문화재(건축·시설물) 재평가 결과 보고

가. 추진배경

- 등록문화재제도 도입 초기 멸실 위기의 근대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주안점을 둔 결과 심층적 가치평가 미흡
 - 일부 등록문화재의 경우 보다 엄격한 가치보전을 위한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지정 필요성 대두 및 문화재 명칭 적합성 문제 제기
 - * 최근 시·도지정문화재 사적 신청(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구 군산세관 본관 등)

나. 추진사항 (붙임 1, 2 참조)

- (추진개요) 등록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대상 자문단 구성 평가
 - 역사적 가치 및 원형유지, 대표성, 희소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토대로 서면평가(1차·2차) 및 현지조사 실시

※ 평가대상 문화재

- (등록문화재) 건축·시설물에 속하는 등록문화재 445건(‘17.6.기준)
- (시·도지정문화재) ‘사적’ 승격 필요성이 제기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등 12건

- (추진경과)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15명 / ‘17.6월)
 - (1차) 서면평가(8월) 및 평가회의 개최(8.17.) / (2차) 서면평가(10월) 및 평가회의 개최(12.1.)
 - 평가결과 토대로 현지조사(12.7.~16.)를 거쳐 사적 승격 권고 대상 최종 확정

- (1차 평가회의) 권고 대상 선정(126건) : 등록→사적(114건) / 시·도지정→사적(12건)
- (2차 평가회의) 권고 대상 선정(24건) : 등록→사적(15건) / 시·도지정→사적(9건)
- (현지조사결과) 권고 대상 선정(26건) : 등록→사적(17건) / 시·도지정→사적(9건)

다. 평가결과 (붙임 3 참조)

- (사적 권고) ‘이화여대 파이퍼 홀(등록제14호)’ 등 등록문화재 17건, ‘선교사 스위트주택(대구시 유형 제24호)’ 등 시·도지정문화재 9건 등 총 26건
- (명칭 조정) 관련 연구용역 실시 후 일괄(근대사적, 등록문화재) 검토

라. 향후계획

-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보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검토(12.26.)
- 지자체, 소유자 의견 수렴 및 사적 승격 지정 권고(‘18.1.)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원안접수 9명

4.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경과사항 보고 (경의선 출입구 이전)

가. 보고사항

-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 평창올림픽 철도 수송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구 서울역사」 주변 경의선전철 출입구 이전공사를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사항에 대한 경과사항 및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합니다.
- 동 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17.7.25)과정에서 '시설물 설치의 가역성 확보 방안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 소위원회 위원 : ○○○, ○○○, ○○○, ○○○, ○○○, ○○○

나.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철도공사 사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서울역사(사적 284호)
- (3) 사업목적 : 2018년 평창올림픽 철도 수송지원 체계구축
 - 기존 경의선 노선을 평창 수송노선으로 활용(서울~강릉 KTX 노선으로 변경)
 - * 현재 사용중인 경의선은 구 서울역사 근처로 이전, 지속운영
- (4) 이전위치 :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17번지 일원
- (5) 추진경과

- ('17.8.11)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 서울역 스마트센터
 - 참석자 : ○○○·○○○·○○○·○○○·○○○·○○○

✓ 영구적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연결통로, 철도, 플랫폼)이외의 부대시설은 가역적인 설계로 진행, 가역적 시설 사용기한은 준공 후 2년, 역사주변에 대한 정비계획도 함께 실시

- ('17.10.17) 1차 자문회의 * 철도공사 주관 / 서울사옥 영상회의실
 - 참석자 : ○○○·○○○·○○○·○○○·○○○

✓ 문화재 서울역과 주변환경이 잘 어울리는 역무시설 디자인(구체적인 질감, 색상, 공법 등)으로 보완
 ✓ 역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한 설계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설건물로 검토
 ✓ 기존 구조체와 신설부분을 신축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조체 상부에 설치
 * 구서울역 후면 캐노피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구조해석

- ('17.11.18) 2차 자문회의 * 철도공사 주관 / 서울건축사업소 회의실
- 참석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제시 역사 설계안 중 1안<붙임>으로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 및 E/S외측 판넬은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및 재료검토 - 역무실 유리는 서향 및 복사열에 대한 고려 필요 - 옥상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접근성 및 급배수 검토 * 서울역의 상징성을 감안, 임시적 가설건물보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있는 건물로 추진 ✓ <u>구서울역사 후면 캐노피관련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추가검토 필요</u>

- ('17.12.13) 최종 설계도면 접수(철도공사→문화재청 근대과)
- 후면 캐노피관련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추가검토 완료
* 권기혁 전문위원 최종 검토·승인
- ('17.12.17) 최종 허가사항 공문 통보(문화재청 근대과→철도공사)

다. 최종 허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12.17~2018.7.10

<실별 면적개요>

종별	실명	면적 및 크기	비고
환승공간	엘레베이터	17인승, 1대 (3.3*3.3M)	외부 유리마감
	에스컬레이터	1200형, 2대(3.5*15M), 경사30도	벽체:유리+판넬마감 지붕:유리마감
	승강장연결통로	W:7.4m	바닥:화강석마감
	계단	W:2.5m, 단높이:15cm, 33단	바닥:화강석마감 난간:유리마감
	후면 데크	240㎡(24*10m)	유리카노피 바닥:화강석마감
승강장	흙지붕	650㎡(5*130m)	철골조, 판넬지붕
역무공간 및 고객편의 시설	역무지원실	33㎡(6.3*5.1m)	수성페인트 마감
	고객화장실(남)	30㎡(5*6m)	타일마감
	고객화장실(여)	30㎡(5*6m)	타일마감
	처소 및 창고	67㎡(13.8*4.8m)	수성페인트 마감
	복도	32㎡(1.8*17m)	철골프레임, 판넬마감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원안접수 9명